



6월의 기도

1. 저희 DCEM 선교 단체가 故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을 붙드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며,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헌신한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며, 선교지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도록 하시며, 선교사들의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붙들어 주소서.

3.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오니,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념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4.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에게 겸손한 마음과 통찰력을 부여 주시고, 국민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자매님이 철두철미하게 유교사상에 젖어 있는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주중에 양 같이 온순하여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을 복종하였으나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시부모와 남편은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구들을 뜯고 그 속에 넣은 다음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후 구들을 들고 며느리를 꺼내보니 그녀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머리가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며느리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모와 남편이 회개하였고 그 후 훌륭한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une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DCEM 2005년 해외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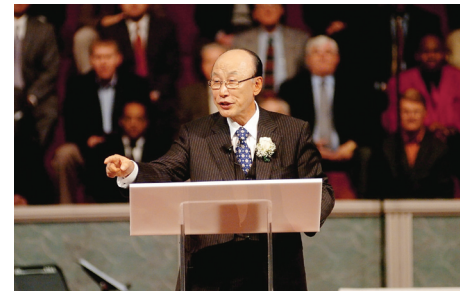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위치한 갈보리교회에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2005년 11월 개최한 '페이스 프라미스 미션 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본 성회는 1960년대에 세워져 미국과 스코틀랜드, 영국에 성령운동과 제자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 갈보리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2005년 11월 13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성황리 개최된 성회다.

갈보리교회(랜달 로스 목사)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한 본 성회는 갈보리 교회 성도를 비롯해 교회 지도자, 셀그룹 리더 등이 참석해 성회를 이뤘다. 갈보리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성회가 진행된 갈보리 교회 오디오룸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다. 세계최대 교회 목회자이며 복음전도자인 조용기 목사가 갈보리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시카고와 네이퍼빌에 전해지자 갈보리교회에는 새벽부터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차량행렬이 길게 늘어선 있었다. 오전 8시에 비로소 시작된 성회는 찬양과 기도의 함성으로 뜨겁게 돌아올랐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찾아든 성도들로 인하여 예배가 두 번에 걸쳐 드려지게 되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이 주일 1부 예배에 미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예배를 두 번에 걸쳐 드리게 된 것이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의 같은 제목으로 두 차례 설교했으나 예화와 간증이 새로와 현지 진행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갈보리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에 대한 스크린을 예배시간에 방영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당시 기준 6백여 명의 선교사가 전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도들의 환영 속에 단 위에 오른 조



용기 목사는 '믿음의 능력과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여 미국 일리노이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성회가 되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예배에 앞서 서부 지역에서 왔다는 한 여 성도를 위해 특별히 안수하며 기도했다. 심장 수술을 앞둔 그녀는 조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 6개월 전 한국을 방문했었지만 안수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아 기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그녀는 조용기 목사가 네이퍼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안수기도를 받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 (마태복음 8장 5~13절)

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짚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죄로 말미암아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죄 때문에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으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치료와 역사도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눅 7:22)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병 고치는 것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앓은병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고 전해라.” 이것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충분히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가 있을 뿐 아니라 치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2. 간절히 기도하라

둘째로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위로만 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 16:17~18)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고 간절히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

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3.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

셋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 8:8~9)

백부장의 대답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짐, 질병과 짐, 절망과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몸을 찢고 피 흘려 너를 값주고 샀다. 내게 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치료해 주마. 내가 마귀를 내쫓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생활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

여러분, 모두가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마태복음13

사망의 그늘에 비친 빛



릴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의 빛이십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며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은 구원의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고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신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갈릴리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땅과 납달리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 4:14-16)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해야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신약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갈



‘빛을 받으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함께 빛을 얻지만 예수님을 버리면 결국 어둠속을 자처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 구약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열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과거를 버리고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삶의 방향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것도 회개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삶 전체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인본주의로 살던 과거에서,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구원의 빛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깨닫는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돈, 지위, 명예, 권세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은 천길 만길 벼랑에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빛이 마음에 비치면 캄캄한 삶도 환해지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